

September 29, 2006



박근혜 “북핵 포기땀 동북아개발은행 설립 추진”

독일을 방문중인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는 28일(현지시간) “북한이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를 포기한다면 주변국과 국제기관이 참여하는 동북아개발은행(NEADB)의 설립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표는 이날 베를린 아데나워 재단에서 ‘독일과 한국: 함께 열어나가는 미래’란 제목의 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동북아개발은행 구상과 관련, “6자회담 당사국은 물론 몽골과 유럽연합(EU), 세계은행(IBRD),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금융기관이 공동 출자, 북한의 경제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중국의 동북3성과 러시아 극동, 몽골 등 동북아시아의 개발에도 투자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동북아개발은행은 일단 50억달러 규모로 시작하되, 한국이 15억달러를 대는 등 30억달러는 역내국가에서 마련하면 될 것”이라며 “동유럽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유럽부흥개발은행의 경우 투자유발효과가 10배 정도 됐다”고 덧붙였다.

박 전 대표는 이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이 핵문제 해결이후 동북아의안정과 평화를 공고히 하기 위한 ‘동북아안보협의체’로 발전해가기를 희망한다”며 “동북아개발은행과 동북아안보협의체가 성공적으로 운용된다면 이를 동북아안보경제공동체(NEASEC)로 확대발전시켜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대북지원에 대해 그는 “독일의 경우 동독과의 교류때 지원하는 만큼 분단고통의 완화란 대가를 반드시 관철시켰다”면서 “한국도 북한의 약속이행에 상응하는 지원을 통해서 변화를 유도할 때 올바른 남북관계로 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표는 또 “통일한국이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체제의 중간 정도인 혼합체제 비슷하게 될 수는 없다”며 “통일한국이 지금 한국이 누리는 자유와 인권을 후퇴시킨 국가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미디어칸 뉴스팀>

September 29, 2006

Übersetzung

Park Geun-hye: „Wenn Nordkorea die Atomwaffen aufgibt, kann eine ‚Northeast Asia Development Bank‘ gegründet werden“

Nach Ansicht Park Guen-hyes solle im Falle eines Einlenkens Nordkoreas im Atomkonflikt eine „Northeast Asia Development Bank“ gegründet werden, an der sowohl die Nachbarländer als auch Internationale Organisationen beteiligt wären. Dies verkündete sie während einer Rede in der Konrad-Adenauer-Stiftung am 28. September in Deutschland. Sie stellte auch fest, dass in einem wiedervereinigten Land die errungenen Freiheits- und Menschenrechte Südkoreas nicht geschmälert werden dürften.